

녀행치산가 女行治産歌



[해제]

<녀행치산가(女行治産歌)>는 뒤에 나오는 <이자가>와 같은 책에 실려 있어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여성가사이자 교훈가사라 할 수 있다. <이자가>는 아들에게 교훈을 일러 주는 내용인데, 이 작품 또한 딸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시집간 이후의 여자의 삶과 재산을 모아가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총 537행의 장편가사이다. '己未二月初八日'이라고 권두에 적혀 있어 대략적인 제작연대를 짐작할 수 있으나,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제작연대는 알 수 없다. 단지 함께 실린 <이자가>에 '태극기', '매국노'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19년 기미년임을 짐작할 따름이다.

[원문]

기미이월 초팔일

녀행치산가

녀행치산가라

어와 이 소년들아 이니말삼 드러보쇼
늑지마자 빙세흐되 무정흔것 세월이라
흑두킵발 잠관이요 퉁년광음 유슈로다
어언지간 칠십이라 무엇하고 늘거난고
인간무용 이노인은 후회막급 쏘이로다
여행치산 노력지여 후심경계 흐오리다
망영으로 아지말고 정담으로 드러셔라
천지간 만물중의 실영흔건 사람이라
얼골노 있던것과 흰사로 이로미라
신체발부 이니몸은 부모임게 바다스니
훈소로 친익하고 지성으로 봉양호소
훈정신성 못다흐되 구체지양 심을쓰소
가막간치 저 김생금조도 반토홀출 능이아시
하물며 사름이야 부모봉양 섬셔흐되
부모은덕 놀난흐면 퉁산이 가부야워

생천추양 극키흐되 만분일을 갑풀손야
귀흐도다 우리형제 부모윤기 함기바다
형슈동기 형제간의 우익화목 안이홀이
십오세 당흐거든 지중범절 빅와셔라
친정의셔 못빅우면 출가흐면 후회흐되
언문공부 할연이와 침션즉조 위션호소
행동거지 살퍼흐고 언어슈작 조심호소
과년의 출가하기 여자의 예사로다
이친출가 무삼일고 삼중지에 지중흐다

출가여자 소년부들아 삼종쫓설 드러보소
어려서난 부모좃고 가장죽어 자식좃나니
삼강오륜 선각하야 출가하면 가장좃고
귀문의 생장여자 삼강오륜 어이알니
이름이론 샘종이라
삼강이라 하느것슨 신하버린 버리임군이요
자식버린 버리이비되고 부처버린 버리가장이라
오륜이라 하난쫓슨 부자간의 친이하고
어륜소연 차례잇고 부부간의 분별잇고
군신간의 의가잇고 봉우간의 신이잇셔
삼강오륜 쫓슬알면 여형의도 유조하리
출가삼일 지닌후의 감지숙슈 조심하소
시부모께 회양하면 여중회부 예가되고
가장의게 공경하면 일은바 열녀로다
어육쥬병 과실등물 어더보면 봉친하소
시부모라 하느어륜 우리가장 부모로시
부부간 무실하면 가법이 자연히이 호되
일가친척 화목하고 슬하노복 익힐하소
옛적의 어진사람 구세동거 하여잇데
구세동거 어이하고 차물인자 퍽이로서
차물인자 명심하면 구세동거 나도하리
노비라 하난거시 너의슈족 안일년가
활난쳐슈 화중도 불고사싱 거행하니
의식으로 익힐하소 자식과 달을쏘야
시집사리 하난중의 칠거지악 조심하소
이목총명 가다듬아 칠거지악 쫓슬듯소
훈가지는 불순부모 두가지는 음행이요
세가지는 무자식과 네가지는 투기로다
다섯지는 병신이요 여섯지는 식실이요
일곱지는 도적이니 부디 조심 하여셔라
칠거지악 조심중의 불순부모 되죄로다
슬푸다 불회부야 버린다고 셔러말나
투기지심 도적심은 명심하야 조심하소
세살조코 음탕하면 망신망가 절노되리
어와소연 여자들아 이니말삼 드러보소
조심하소 조심하소 온갖일을 조심하소
음간사라 하난거시 잠관식이 있어로다
흔번실히 활작시면 망신망가 가련하다

반상노소 못사람이 일은말이 이년저년
 저난망신 아니로라 시가본가 다망흐되
 조심흐소 조심흐소 부디부디 조심흐소
 식살이라 흐느것슨 망신화가 근본이라
 장단집이 자로가되 말단집이 가지말소
 옛늘근이 증험흐야 속담으로 일너쏘다
 시비선악 남으말은 셔쫄티 걸지말소
 남으인간 될작시면 시비허설 분간활제
 저사람 성닌악담 부모속을 몬져흐되
 먹살이며 귀똥이며 두발부림 쫄시엄다
 신슈가운 불행흐면 악명듯기 아조쉬워
 구시화문 일너스니 부디말을 조심흐소
 슈구여병 일너스니 병님갓치 맞아두고
 방의여성 일너스니 성과갓치 막아서라
 횡동거지 조심흐고 언어슈작 조심하소
 몬소티로 흐지말고 순흔말노 할야이면
 가중도 무사흐고 이웃도 칭용흐리
 남의노인 공경흐소 남도쏘흔 그러흐리
 남의자식 사랑흐소 남도쏘흔 그러흐리
 노오노이 급인지노라 음오음이 급인지유을
 만고 아성성인 잉부자도 후학경계 흐시도다
 외당의 손이오면 긴염소리 흐지말소
 다행소리 들닐진딘 손의마암 편홀소냐
 층가음무 먹난티로 종용이 차려니소
 우리시무 우리가장 집씨나면 손이로시
 도쳐쥬인 너갓트면 낭피될일 싱각흐소
 피차간의 손이되면 횡식은 일반이라
 손이오면 문을열고 손안오면 문닫나이
 정지후박 위서찬소 짐작흐여 디접흐소
 선조취일 당흐거든 제사도 잘지니소
 목욕지게 단속흐고 제물등절 심을쓰소
 정결흐게 장만흐고 지성으로 장만흐소
 사사싱싱 일반이라 정성으로 봉사흐고
 퍽골선영 감동흐면 자손복녹 연면흐리
 세시복남 사명일도 지성으로 잘지니소
 제사후 나문음식 동니사람 난어쥬소
 조흔음식 먹지말고 이웃친척 난어쥬소
 모쳐모쳐 싱각흐여 최정으로 난어쥬소

음식긔티 실인심이 명약관하 정녕하리
음식허비 실인심은 원통하고 통분하리
조심하고 명심하여 득인심을 위주하소
온갖횡실 닳은후의 치산하기 심을쓰소
입아소연 여자들아 치산하기 심을써라
원슈로다 원슈로다 세상가난 원슈로다
인간세상 원통한것 가난박기 쏘잇노야
익발천심 이노인은 어이치산 못하쓰가
원슈로다 원슈로다 세상가난 원슈로다
질고진 삼사월의 죽은사발 지어먹고
차고찬 동지셋달의 훗옷실오 지닌날제
굴문자식 밥을달나 버슨손자 옷슬달나
불고염치 굴문셔석 동네희촌 걸식홀제
무삼죄를 지어든고 믱를맛고 울고오니
운난자식 품의품고 눈물노 일은말이
믹터를 만지면셔 믱마지면 쉬큰단다
우지마라 우지마라 제발덕분 우지마라
밥을쥬마 우리마라 고기쥬마 우지마라
불승기 한저으히 이말을 고지듯고
손자놈 밥을쥬소 쏘저놈 고기쥬소
온야쥬마 온야쥬마 헛말노 쇼겨갈제
세상가난 용천이라 원통하다 가련하다
저것더리 무삼죄요 치산못하 넉죄로다
치산하라 일은말을 웃지말고 명명하소
치산이라 헛난것시 위선농사 심을쓰소
산산육등 박토라도 거름하면 곡식되리
옛사람이 언선하되 농불실시 일너쏘다
상평전하 평전의 농사하기 지미로시
모익셔속 두뿔전의 제초하기 심을쓰소
춘경쥬슈 하올적의 세상만사 지미로다
농사도 하련이와 질삼일도 하여셔라
여자몸이 되여스니 질삼안코 무엇하리
쥬동양절 쥬야간의 물넉빅틀 벗슬삼소
춘하양철 풍화시의 마포저포 심써낫소
석달농사 잠농이니 뉘에키기 공부하소
온갖질삼 심써하소 옷과밥이 일체로다
온갖빅틀 낫코나셔 권속노비 입핀후의
넉문빅틀 탈작시면 이것도 한지물일시

우마게견양시 등물 암김싱을 길너두소
 육축김싱 선물션은 사람으게 잇난이라
 온갖치슈 잘각구와 삼시반찬 허여셔라
 조흔반찬 게다두고 갑준고기 사지마소
 삼시음식 장만홀세 정신쓰고 조심허소
 시도립도 아니허게 마치맛게 장만허소
 남으짐성 피사흘 음식으로 으난이라
 자고자면 쓸고쓸되 문지썸을 업게허소
 정지단속 촉심허어 화변조심 극키허소
 상멋닥기 명심허고 그룩닥기 자조허소
 난전단속 심역허야 후원송죽 키워니소
 송죽이라 허난것시 여령가의 긴용이시
 삐고남은 송죽베셔 파라다가 전답사소
 밧슬사고 논을사면 가세자연 요부허리
 압페노적 뒤의노적 석송갓튼 부자되리
 옛적의 티임티사 잉티허여 티교허니
 티교란 쏫 드러보소 낙키전의 가라치니
 구진빋과 음탕소리 보고듯지 아니허니
 구진음식 안이먹고 위티허디 안지온니
 이럿탄훈 십삭만의 탄싱허면 옥동자라
 형용이 단정허고 직조도 총명허리
 강보중의 자라니셔 십여세를 당허거든
 어린자식 가라치되 정다이 가라치소
 링자의 어마임은 세번옴겨 가꺠칠제
 처음에 난장 가시오 두번차난 뭇가시오
 세번초난 학궁인디 모두지례 싸라허니
 이웃차자 가라치니 천고 미사로다
 상시무관 일너시니 자식보고 헛말마소
 어진스승 마져다가 글공부를 가라치소
 사셔삼경 퍽꺠지를 무불통지 가라치소
 근본지조 닛난고로 수용산출 기지로다
 글지조 옴타 무삼닐고 기디갈칠 덕니로다
 즈은모중 동부허시 문장지사 되건구나
 황시경시 경영홀제 노자업셔 근심허리
 황시장원 독첩허야 경시장원 연중허고
 춘당디 알성 과거 장원급제 죠홀시고
 인성만성 만장중의 죽일창방 더욱쫓타
 어전숙빅 허온후의 어쥬삼빅 쥬시도다

흥부바다 펴해보니 장원급제 모야로다
 머리우의 어사화요 손의천것 옥홀이시
 철이준송 덕도산의 두텃시 안자시니
 압과뒤의 청흥기요 쌍쌍화동 옹위하늬
 옥저소리 조흔중의 장악풍유 더욱좃타
 삼월춘풍 덕도상의 일일간지 장안화라
 지상신선 닌아니야 보는사람 사랑하늬
 삼일유 과흔연후 도문차로 닌려오니
 도문일자 모월모일 소죽몬저 세워쏘다
 동남풍 드러불면 핑경소리 경지로다
 덕여지상 저문날의 도문절차 차라닐제
 전곡업서 근사하면 쥬육없서 못홀손야
 윤산포짐 싸어두고 병풍치일 돌너치고
 덕무잔치 자리우세 저저청금 열좌홀제
 굿보자고 오는사람 남녀노소 상하염시
 불원철니 오는거동 용문산의 안기못듯
 음식이며 양경전과 각식노림 다모왓니
 중전수성 옥저소리 소영신은 드러으늬
 어사화를 비게씻고 퍽옥홀을 충의취고
 청포옥덕 저신은이 큰말우의 안자스니
 쌍쌍화동 니열하고 각식풍유 진동홀제
 쥬순만리 미소하고 어연이드러 오는거동
 보난사람 다이트되 천상선관 흥강흔가
 흥픽픽픽 으뢰면서 사당고석 몬저하고
 금의환형 영화로써 부모님께 영치할제
 퍽발부모 거동보소 불각기팍 춤을츄네
 네팔조도 조커니와 닌팔자도 조홀시고
 무엇먹고 너를빅와 지죄좃케 누악논고
 천상지하 못박스되 인간의난 저썸이라
 굿슬보난 사람드라 날을보고 웃지말소
 평심에는 처음이요 다시못볼 일이로다
 어마님의 거동보소 불승환히 춤을츄니
 바로셔며 도라보며 춤버리고 일은말이
 저양반이 무엇흔고 자식영화 닌덕이제
 글공부 잘 하기도 치산잘흔 닌덕이요
 초시진사 급제하기 치산잘흔 닌더이요
 웃지마소 웃지마소 춤춘다고 웃지말소
 초연등과 저선분이 희생인들 업쓸손야

우리부모 춤을추니 닌들춤을 아니출가
 청포옥디 입은차로 빅옥홀을 손의쥐고
 부모전의 춤을추니 뉘가안이 춤찬허리
 춤추난뜻 뉘가알니 부모양지 화적자로다
 도문안치 지닌후의 각선산의 소분하고
 도리원중 추야연의 춤흥으로 빅설허니
 친척모와 정담홀제 병축야유 경이로다
 지인놈의 노리소리 창부놈의 노리소리
 각식노림 질기노니 이도또흔 경기로다
 각각손이 유과허제 노소친척 치허로다
 찰떡가튼 문신급제 베살극사 안이홀야
 부모님전 허즉하고 황성의로 치치달늑
 전허전의 복지허니 전허보고 반기허다
 손을잡고 그라사디 영친영산 허여논가
 경의효성 지극허니 반다시 춤신이라
 춤신열여 효자문을 옛글의 허옛스되
 춤신인지 썬우랴고 춤당과거 비여드니
 장원급제 경을보니 춤신인제 분명허다
 진심갈춤 나를도와 국가티평 허여셔라
 으뜸담다 장원급제 장허도다 너의춤신
 하늘이 날을도와 고공지신 어덧또다
 옛적의 요순세도 고요직설 춤신이요
 은나라 은왕성탕 이윤어더 성군되고
 쥬나라 쥬무왕은 여상어더 성군되고
 장양소허 허신등은 허고조의 고공이요
 당나라 위종이도 당티종의 쥬석이라
 경도충성 진심허야 국가사를 다사뢰소
 삼티육경 도라보며 장허도다 너의춤신
 무삼베살 제슈허고 할임쥬셔 영화로다
 지평장영 정은승지 차려로 다 지니고
 각읍슈령 각도방빅 차려로다 지닐적의
 북당부모 영화보소 쌍교타고 독교탈제
 호사로다 호사로다 마두일산 호사로다
 십니오리 권마성은 너의호강 안일손가
 입아소연 여즈들아 자식권학 심을쓰소
 진사급제 벼살살기 공부잘흔 덕이로서
 자식공부 권허기도 가난헌면 못허난니
 일후영화 붙야거든 치산보름 심을쓰소

남의성세 불버말고 남의베살 권치마소
음전하면 가사귀라 속담으로 일넛쏘다
니의형세 요부하면 과거베살 으조쉬워
지중녀자 되여스니 치산외의 무엇허리
익도롭다 이니몸이 남즈못된 훈이로다
남자몸이 되얏스면 부귀공명 못홀소야
춘당덕 알성과거 월중단계 남출소냐
화류잔안 호시절의 쥬식으로 노라보고
경로덕 축설누의 난간비겨 놀아보고
월출산 금강산을 경치차자 구경하고
팔경팔외 조흔경기 오음육을 풍악소리
시름고인 벗을불너 슈시슈경 놀연만은
슬프다 이니몸이 여자몸이 되야스니
명승지 명승지 구경하기 훈탄하되 무가니라
다두워라 언의제야 원통하온 여자몸이
인칭환칭 다시하야 남자되야 놀으볼고
이글썃슬 명심하야 전지무궁 흠옵소서
이아리는

이자가라

금자동아 옥자동아 인칭일세 만사중에 총군이
국 제일이라 일신부귀 탐득하야 미국적은 되지말
고 경국제민 하야볼가 어화동동 니아달
금자동아 옥자동아 천칭존민 흠실씨에 이무켈리 쥬
섯거늘 타인노예 되지말고 내의이무 진역하야 자
유권리 회복홀싸 어화동동 니아달
금자동아 옥자동아 인이불학 하고보면 우마굸거
무리하며 기반사역 난면이니 각종학문 연구하야
지이발달 하야볼고 어화동동 니아달
금자동아 옥자동아 덕장부의 더헝사가 뤼뢰낙낙 관
명하야 청천벽일 갖치하고 간활소인 효측말며
정확군자 되여불세 어화동 어화동 니아달
금자동아 옥자동아 적지불용 하느주는 돈건불약
수전로라 자선가로 목적하고 공익사업 다쥬하야
사회성입 하야볼싸 어화동동 니아달
금자동아 옥자동아 경칭시디 칭존하야 모험심이 업고
보면 일보지훈 난진이라 서사고락 관계말고 위국헌
신 하야볼싸 어화동동 니아달

[현대역]

여자의 행실과 재산을 모으는 노래라
어와 이 소년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늙지 말자 맹세하되
무정한 것 세월이라
검은 머리 흰 머리 잠깐이요
백년 세월 유수(流水)로다
어느 사이 칠십인데
무엇하며 늙었는고
쓸모없는 이 노인은
후회막급 뿐이로다
여행치산 노래 지어
후손의 가르침으로 삼으리라
망녕으로 알지 말고
정다운 소리로 들으소서
천지간 만물 중에
실제 모습은 사람이라
얼굴이 있는 것과
흰사를 이름이라
신체발부 이내 몸은
부모님께 받았으니
훈을 다해 친애하고
지성으로 봉양하소
훈정과 신정으로 못다 하면
구체지양 힘을 쓰소
가막눈인 저 짐승도
반토할 줄 능히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부모 봉양 힘써 하되
부모 은덕 논란하면
태산이 가벼워서
날아서 부모봉양 지극히 하되
만분의 일이야 갚을텐가
귀하도다 우리 형제
부모 기운 함께 받아
형수 동기 형제 간의
우애 화목 아니하리

십 오세가 되거들랑
예의범절 배워두라
친정에서 못 배우면
출가해서 후회하리
언문 공부 하거니와
침선즉조 우선하오
행동거지 살펴보고
언어수작 조심하소
나이 들어 출가하는 것이
여자에겐 예사로다
부모의 뜻 어긴 출가 무슨 일인가
삼종의 예 중하도다
출가 여자 소년들아
삼종의 뜻 들어보소
어려서는 부모 좃고
가장 죽으면 자식을 좃나니
삼강오륜 먼저 깨쳐
출가하면 가장을 좃고
귀한 가문에서 자란 여자
삼강오륜 어이 알리
이를 일러 삼종이라
삼강이라 하는 것은
신하 있어 임금이요
자식 있어 아비되고
아내 있어 가장이라
오륜이라 하는 것은
부자 간에 친애하고
어른 소년 차례 있고
부부 간의 분별 있고
군신 간의 의가 있고
붕우 간의 신이 있어
삼강오륜 뜻을 알면
여자가 하는 일도 절개가 있으리
출가 삼일 지난 후에
정성을 다하여 부모공양 조심하소
시부모께 부드럽게 하면
며느리의 예가 되고
가장에게 공경하면

이른 바 열녀로다
고기 술병 과일 등등
얻게 되면 부모 받드소
시부모라 하는 어른
우리 가장 부모라네
부부간 실수 없으면
가법이 자연히 좋아지니
일가친척 화목하고
슬하 노복 불쌍히 여기소
옛날의 어진 사람은
세상 구하고자 함께 하였는데
구세 동거는 어이 하는가
참을 인자 백번일세
참을 인자 명심하면
구세 동거 나도 하리
노비라 하는 것이
나의 수족 아닐런가
난리 중에 화를 입은 백성도
삶과 죽음을 돌아보지 않으니
옷과 음식으로 애휼하소
자식과 다르겠는가
시집살이 하는 중에
칠거지악 조심하소
눈과 귀 총명케 가다듬어
칠거지악 뜻을 듣소
한 가지는 불순부모
두 가지는 음행이요
세 가지는 무자식과
네 가지는 투기로다
다섯 째는 병신이요
여섯 째는 잔소리요
일곱 째는 도적이니
부디 조심하였거라
칠거지악 조심할 때
불순 부모 대죄로다
슬프다 쫓겨난 며느리아
버린다고 설워마라
투기지심 도적심은

명심하여 조심하소
잔소리 많고 음탕하면
패가 망신 절로 되리
어와 소년 여자들아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조심하소 조심하소
운갓 일을 조심하소
음란사라고 하는 것이
잠깐 사이에 생기는 것이라
한 번 남김없이 다 해버리면
패가망신 가련하다
양반 상놈 늙은이 젊은이 못 사람이
하는 말이 이년 저년
저는 망신 아니노라
시가 본가 다 망하니
조심하소 조심하소
부디부디 조심하소
잔소리라 하는 것은
집안에 재앙을 들이는 근본이라
창을 단 집에 자러 가되
말을 단 집에 가지는 마소
옛 늙은이 말이 효험있어
속담으로 일렀도다
선악을 시비하는 남의 말은
혀 끝에도 걸지 마소
남의 인간 될작시면
시비와 헛소리 분간할제
저 사람 화를 낸 악담
부모 속을 먼저 알아
역살이며 쫓돌이며
두발 부림이 끝이 없다
신수와 가운이 불행하면
악명 듣기 아주 쉬워
입에서 재앙이 시작된다 일렀으니
부디 마음 조심하소
입을 지킴을 병같이 하라 일렀으니
병님같이 맞아두고
방의 여성 일렀으니

성과 같이 막아라
행동거지 조심하고
언어수작 조심하소
어떤 소리도 하지 말고
순한 말로 할 양이면
집안도 무사하고
이웃도 조용하리
남의 노인 공경하소
남도 또한 그러하리
남의 자식 사랑하소
남도 또한 그러하리
노오노이 급인지노라
음오음이 급인지유을
만고의 성인인 맹자도
후학을 경계 하시도다
바깥 방에 손님 드시면
싫은 소리 하지 마소
내정의 소리 들리는데
손님의 마음 편할소냐
음주가무 먹는대로
조용히 차려내소
우리 시부모 우리 가장
집 떠나면 손님이니
도처의 주인이 너 같으면
낭패 될 일 생각하소
피차 간에 손님 되면
행색은 마찬가지라
손님이 오면 문을 열고
손님이 안 오면 문 닫나니
정지후박 위서찬소
조상 기일 맞거든
제사도 잘 지내소
목욕재계 단속하고
제물 등 일체에 힘을 쓰소
정결하게 장만하고
지성으로 장만하소
죽어서 살아서나 마찬가지라
정성으로 받들고

죽은 조상 감동하면
자손의 복도 이어지리
설과 삼복 사대 명절도
(* 歲時伏臘세시복랍 : 설과 삼복을 말함.)
지성으로 잘 지내소
제사 후 남은 음식
동네 사람 나눠 주소
좋은 음식 먹지 말고
이웃과 친척 나눠 주소
여기저기 생각하여
큰 정으로 나눠 먹소
음식 끝에 실린 인심이
명약관화 편안하리
음식을 허비하여 인심 잃으면
원통하고 분하리라
조심하고 명심하여
인심 얻기에 힘을 쓰소
온갖 행실 닦은 후에
재산 모으기 힘을 쓰소
어와 소년 여자들아
재산 모으기 힘을 써라
원수로다 원수로다
세상의 가난이 원수로다
인간 세상에 원통한 것
가난 밖에 또 있느냐
백발된 이 노인은
어이하여 치산을 못하였던가
원수로다 원수로다
세상 가난이 원수로다
길고 긴 삼사월에
죽 한 사발 지어 먹고
차고 찬 동지 설달에
흠뻑으로 지나올 때
굵은 자식 밥을 달라
벗은 손자 옷을 달라
염치 불구하고 굵은 자식
동네 이웃 걸식할 때
무슨 죄를 지었던고

매를 맞고 울고 오네
우는 자식 품에 품고
눈물로 하는 말이
맞은 곳 만지면서
매 맞으면 빨리 큰단다
울지마라 울지마라
제발 제발 울지마라
밥을 주마 울지마라
고기 주마 울지마라
한스러움 못 이기는 저 아이
이 말을 곧이 듣고
손자놈 밥을 주소
또 저 놈 고기 주소
오냐 주마 오냐 주마
헛말로 속여 갈 때
세상 가난 몹쓸 병이라
원통하다 가련하다
저것들이 무슨 죄요
치산 못한 내 죄로다
치산하라 이른 말을
웃지 말고 새겨 들소
치산이라 하는 것이
농사에 우선 힘을 쓰소
산 언덕의 박토라도
거름하면 곡식되리
옛 사람이 설명하되
농사에서 제 때를 놓치지 말라 일렀도다
좋은 곳 아래 평평한 곳
농사하기 재미로다
갓은 곡물 두 띠 밭에
제초하기 힘을 쓰소
봄에 갈고 가을 걷이 하올 때에
세상 만사 재미로다
농사도 하려니와
길쌈도 하여라
여자 몸이 되었으니
길쌈 앓고 무엇하리
가을 겨울 양 계절 주야 간에

물레 배틀 벗을 삼소
봄 여름 두 계절 바람 불 적
삼베 모시 힘써 만드소
석달 농사 누에 농사이니
누에 키우기 공부하소
온갖 길쌈 힘써 하소
옷과 밥이 일체로다
온갖 배틀 놓고 놓아
식구 노비 입힌 후에
남은 배틀 탈 때면
이것도 재물일세
소 말 개 등 가축 동물
암컷을 길러두소
짐승 기르는 좋은 길은
사람에게 있나니라
온갖 채소 잘 가꾸어
삼시 반찬 하려무나
좋은 반찬 거기다 두고
값진 고기 사지 마소
삼시 음식 장만할 때
정신 쓰고 조심하소
시지도 맵지도 아니하게
마치 맞게 장만하소
남의 짐승 잡으면
음식으로 아는 것이라
자고 나면 쓸고 쓸되
먼지 쌀임이 없게 하소
부역 단속 마음 써서
불조심을 지극히 하소
상 닦기를 명심하고
그릇 닦기를 자주 하소
갈기 어려운 땅 단속에 마음 써
후원 송죽 키워내소
송죽이라 하는 것이
여염가에 필히 쓰이는 것이니
쓰고 남은 송죽 베어
팔아다가 전답 사소
밭을 사고 논을 사면

가세가 자연히 부유하리

앞의 노적 뒤의 노적

석송같은 부자되리

(* 석송 : 중국 서진의 부호.)

옛적의 임신한 일

잉태하여 태교하네

태교란 뜻 들어보소

낳기 전에 가르치니

긋은 모양과 음탕한 소리

보고 듣지 아니 하네

긋은 음식 아니 먹고

위태한 곳 앉지 않네

이렇게 하여 열 달만에

탄생하면 옥동자라

형용이 단정하고

재주도 총명하리

강보에서 자라나서

십여 세가 되었거든

어린 자식 가르치되

정답게 가르치소

맹자의 어머니는

세 번 옮겨 가르칠 때

처음에 시장이요

두 번째는 무덤가요

세 번째는 서당인데

모두 지레 따라하니

이웃 찾아 가르치니

천고의 아름다운 일로다

언제나 상관마라 일렀으니

자식보고 헛말 마소

어진 스승 모셔다가

글 공부를 가르치소

사서삼경 백 가지를

모르는 것이 없도록 가르치소

원래 재주 있는 까닭에

수용산출 기이한 재주로다

(* 水湧山出수용산출 : 물이 샘솟고 산이 솟아 나온

다는 뜻. 생각과 재주가 샘솟듯 풍부하여 시나 글을 즉흥적으로 훌륭하게 짓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글 재주 용하다 무슨 일인가

그대가 가르친 덕이로다

지은 모종 동부하면

문장 재사(才士) 되겠구나

항시 경시 경영할 때

노자 없어 근심하리

항시 장원 거듭하여

경시 장원 이어지고

춘당대 알성 과거

장원급제 졸을시고

여러 가지 깃발 중에

죽일창방 더욱 좋다

임금께 급제 인사 하온 후에

어주 삼배 주시도다

홍부 받아 펼쳐보니

장원급제 누구로다

머리 위엔 어사화요

손에 쥔 것은 옥홀이네

(* 玉笏옥홀 : 옥으로 만든 홀)

철이준송 큰 길 위에

두텁게 앉았으니

앞과 뒤에 청홍기요

꽃을 든 아이 옹위하네

옥저 소리 졸은 중에

장막 풍류는 더욱 좋다

삼월 춘풍의 큰 길 위에

하루 동안 장안의 꽃이라

지상의 신선 내 아니냐

보는 사람 사랑하네

삼일 간을 머무른 후

도문 일로 내려오네

(* 到門, 도문잔치 :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집에 내려와서 벌이던 잔치.)

도문 일은 모월 모일

조그마한 대 먼저 세웠도다

동남풍 들어 불면

피리 소리 경지로다

큰 경사 저문 날의

도문 절차 차려낼 때
곡식 없어 그럴 듯 하면
술과 고기 없어 못할소냐
온갖 장막 싸여 두고
병풍 차일 둘러 치고
큰 잔치 자리 보아
저 유생들 길게 앉을 때
굿 보자고 오는 사람
남녀노소 상하 없이
불원천리 오는 것도
용문산에 안개 모이듯
음식이며 양갱 전과
각색 노래 다 모와서
맑디 맑은 옥저 소리
음영 소리 들어오네
어사화를 곱게 꽃고
백옥홀을 춤에 차고
청포옥대 저 신은 이
큰 말 위에 앉았으니
꽃 든 아이들 나열하고
각색 풍류 진동할제
주순만리 미소짓고
으젓하게 드러오는 거동
보는 사람 다 말하되
하늘의 선관이 하강하는가
흥패백패 아뢰면서
사당에 먼저 인사하고
금의환향 영화로다
부모님께 치사드릴제
백발 부모 거동보소
똥똥이 춤을 추네
네 팔자도 좋거니와
내 팔자도 좋을시고
무얼 먹고 너를 잉태하여
재주 좋게 낳았는고
하늘 땅 못 보았으니
인간이란 저 뿐이라
굿을 보는 사람들아

나를 보고 웃지마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볼 일이로다
어머님의 거동 보소
한 풀 듯 춤을 추네
바로 서서 돌아보며
춤 멈추고 이른 말이
저 양반이 무엇을 하는가
자식 영화는 내 덕이지
글 공부 잘 하기도
치산 잘한 내 덕이요
초시 진사 급제하기도
치산 잘한 내 덕이요
웃지마소 웃지마소
춤 춘다고 웃지마소
초연등과 저 선비
기쁨인들 없을소냐
우리 부모 춤을 추니
넌들 춤을 아니 출까
청포옥대 입은 채로
백옥홀을 손에 쥐고
부모 앞에 춤을 추니
누가 아니 칭찬하리
춤 추는 뜻 누가 알리
부모 봉양한 뜻 화자로다
도문 잔치 지낸 후에
선산마다 분향하고
도리원 추야연에
춘흥으로 배설하네
친척 모아 정담할 제
병축야유 경지로다
재인들의 노래 소리
창부들의 노래 소리
각색 놀음 질편하니
이도 또한 경개로다
손님들이 유과할 때
노소친척 치하로다
찰떡 같은 문신 급제

배살극사 아니 하라
부모님 전 하직하고
황성으로 치달려서
임금 앞에 엎드리니
임금께서 반기시네
손을 잡고 말씀하시되
영친영산 하였는가
경의 효성 지극하니
반드시 총신이라
총신 열녀 효자문을
옛 글에 하였으되
총신 인재 뽑으려고
춘당과거 보았더니
장원급제한 경을 보니
총신임이 분명하다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나를 도와
국가를 태평케 하여라
아름답다 장원급제
장하도다 나의 총신
하늘이 나를 도와
고공지신 얻었도다
옛적의 요순시대
고요 직설 총신이요
은나라 은왕 성왕
이윤 얻어 성군되고
주나라 주무왕은
여상 얻어 성군되고
장양소와 하신 등은
한 고조의 고공이요
당나라 위종이도
당 태종의 주석이라
경도 충성을 다하여
국가사를 모두 아뢰어라
삼태육경 돌아보며
장하도다 나의 총신
무슨 벼슬 제수할고
할 임무 주셔 영화로다
지평장영 정은승지

차례로 다 지내고
각읍 수령 각도 방백
차례로 다 지낼 적에
북당 부모 영화 보소
쌍교 타고 독교 탈 제
호사로다 호사로다
마두일산 호사로다
십리 오리 권마성은
나의 호강 아닐소냐
어와 소년 여자들아
자식 권학 힘을 쓰소
진사 급제 벼슬 살기
공부 잘한 덕이로다
자식 공부 권하기도
가난하면 못하나니
이후 영화 보려거든
치산부터 힘을 쓰소
남의 성세 부러워말고
남의 벼슬 권치 마소
음전하면 가사귀라
속담으로 일렀도다
나의 형세 요부하면
과거 벼슬 아주 쉬어
지중여자 되었으니
치산 외에 무엇하리
외롭도다 이 내 몸이
남자 못된 한이로다
남자 몸이 되었으면
부귀공명 못할소냐
춘당대 알성과거
월중단계 남 줄소냐
화류잔안 호서절의
주색으로 놀아보고
경로대 축설루의
난간 곁에 놀아보고
월출산 금강산을
경치 찾아 구경하고
팔경팔개 좋은 경치

오음육율 풍악 소리
시름 고인 벼를 불러
수시 수경 놀려마는
슬프다 이 내 몸이
여자몸이 되었으니
명승지기 구경하기
한탄하되 막무가내라
다 두워라 언제나 되어야
원통한 여자 몸이
인생 환생 다시 하여
남자 되어 놀아볼고
이 글 뜻을 명심하여
앞으로 무궁 하옵소서
애자가라
금자동아 옥자동아
인생 일세 만사 중에
충군 애국 제일이라
일신의 부귀 탐득(探得)하여
매국노는 되지 말고
경국제민 하여볼까
어화 동동 내 아들
금자동아 옥자동아
하늘이 백성을 귀하게 낳으셨을 때
의무와 권리 주셨거늘
남의 노예 되지 말고
나의 의무에 힘을 써서
자유 권리 회복할까
어화 동동 내 아들
금자동아 옥자동아
인으로 배움을 익히지 않고 보면
마소같은 무리하며
각종 사역 면키 어려우니
각종 학문 연구하여
배움을 쌓아 넓혀 볼꼬
어화 동동 내 아들
금자동아 옥자동아
대장부의 저 행사가
물러서고 떨어져 분명히하여

청천백일처럼 하고
간사한 소인배들 가까이 하지 말며
정확한 군자가 되어보세
어화 둥둥 내 아들
금자동아 옥자동아
쌓아놓고 쓰지 않는 자는
돈건불약 수전로라
자선가로 뜻을 두고
공익 사업을 주로 하여
사회에 공헌을 하여 볼까
어화 둥둥 내 아들
금자동아 옥자동아
경쟁시대 생존하는데
모험심이 없고 보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생사고락 관계치 말고
나라 위해 헌신하여 볼까
어화 둥둥 내 아들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